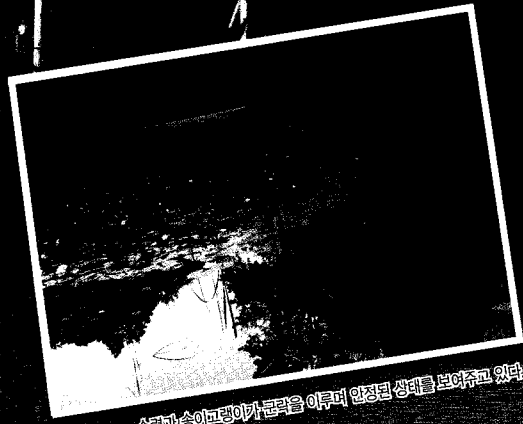


수생식물의 종류 및 이용 특성



수련과 송이보령이가 군락을 이루며 안정된 생태를 보여주고 있다.

수련, 노랑어리연꽃, 노랑꽃잠포가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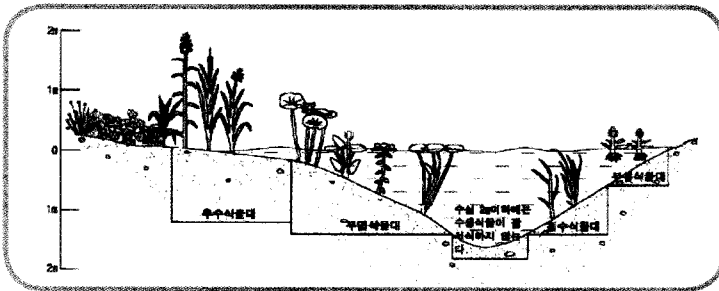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수생식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수생식물은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물속에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는 물론 4계절 볼거리를 주는 경관용으로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수생식물은 물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줄기나 잎에 통기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고 뿌리는 바닥에 뻗으며 잎은 수면 위에서 자라거나 떠돌아다닌다. 수생식물은 육상식물보다 빨리 자라며 한 개체가 수면 밑의 수중, 지하나 수면 위에 걸쳐 있으면서 스스로도 살지만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천이나 연못에서 소생태계(biotope)나 생물 서식공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송정섭 | 이학박사

T.031-290-6214
songjs105@korea.kr /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DA)



〈그림 1〉 수생식물 서식도

〈그림 1〉처럼 식물은 최대 수심 2m 이내의 깊이에서 자라는 것이 보통으로 인공습지 조성 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1m 이내의 수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수생식물에 대해 몇 차례 연재할 예정으로 이번 호는 수생식물의 일반적인 번식 및 재배방법을 소개하고 차 월호부터 많이 쓰이는 갈대, 줄, 수크령 등 10여 종에 대해 2~3개 품목씩 엮어 성장특징 및 이용법을 알아본다.

씨앗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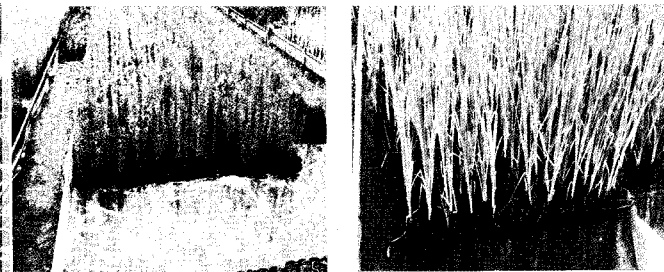
씨앗으로 번식 가능한 것은 갈대, 물억새, 부들 및 부처꽃 등이다. 잘 익은 종자를 따서 그늘에서 말린 다음 충실한 것을 골라 냉장 보관한다. 대부분 미세종자이므로 전용 파종상자에 뿌려 육묘하는 것이 좋다. 파종 후 복토는 하지 않고 가볍게 눌러준다.

영양번식

줄이나 부들처럼 포기의 지하로부터 새로운 분얼이 많이 나오는 종류는 포기당 2~3개의 눈을 뿌리에 붙여 나눈다. 포기나누기는 봄에 피는 것은 가을에, 가을에 피는 것은 봄에 한다. 수련이나 연처럼 뿌리줄기로 번식이 가능한 것은 뿌리줄기를 눈 1~2개씩 붙게 잘라서 심는다. 이들 영양번식은 번식이 간단하고 영양계로서 형질의 변이가 없으며 단기간에 어른 개체로 키울 수 있으나 단기 대량증식하려면 씨앗번식이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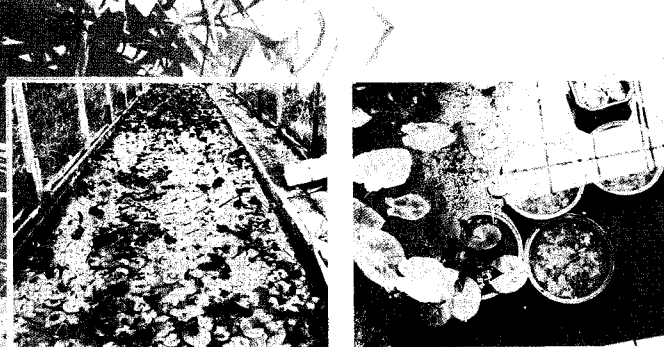
재배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이 수면 위에서 자라는 것들은 그림 2처럼 높이 10~20cm의 베드를 설치하여 담수 재배한다.



〈그림 2〉 부처꽃과 노랑꽃창포 육묘 광경

뿌리가 드러난 것은 얇은 화분에 심어 물속에 넣어 관리한다. 베드높이는



〈그림 3〉 수련의 분화재배

일상생활을 개화기에 보물창고의 아름다움을 들뜬 수경정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